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 여야 공수처 이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교섭단체 3+3 회동...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각 당 입장 확인 검경수사권 조정 큰 틀서 공감대... 23일 선거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했지만 별도의 의견 조율에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

자들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 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고불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

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현,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개혁작업 중단없다"

장관 사퇴 이틀 만에 입장... "인권보호 수사 규칙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 지휘했던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이후 이틀 만에 나온 검찰의 공식 반응이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 개혁 작업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권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 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선 "수사공보준칙"을 재검토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연합뉴스

유승민 "황교안 만날 용의 있다"

'탄핵 인정' 단서 달아... 보수대통합 '주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로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 보수대통합이 급물살을 타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16일 당내 비당권파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날만 잡히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황 대표와) 따로 연락한 것은 없고, 양쪽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니라, (황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적 보수로 나와 넓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개혁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질문에는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제가 제시한 원칙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저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적 첫발인 대구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도 만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유승민 전 대표가 보수통합과 관련,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 우파가 함께 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 내려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 되어 한다"며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檢 개혁 반드시 완수... 조국 수사 결론내야"

민주당 최고위... 이인영 "한국당 공수처 반대 역대급 억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 완수의 지를 적극 부각하며 대야(對野) 공세에 힘을 쏟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놓고 일부 친문(親文) 지지자들이 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거론했다. 그는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며 "조국 전 장관과 국민이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로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특별감찰관은 주장하면서 공수처는 안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마치 자신들이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하는 자세를 보면 한국당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러진 검찰개혁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대야투쟁을 '10월 항쟁'이라고 표

현한 것과 관련, "자신들이 독재 정권의 후예라는 사실을 망각한 발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로 야기된 국론 분열에 대해 사과해 주목받았다. 그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렸다"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화합해서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더불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과정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서초동 촛불' 국회로

檢개혁안 통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열렸던 촛불집회가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개최된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오는 19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투쟁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개국본 다음 카페에선 부산, 세종, 원주 등 지역에서 상경하려는 참석자들의 전세 버스 예약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개국본은 26일 토요일 집회 후 패스트트랙 분회의 상정을 위해 29일까지 국회 앞에서 2박 3일 투쟁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시민, 알릴레오 패널 성희룡 발언 사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16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 기자를 성희롱하는 패널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자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곧바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중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정신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